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56호 [부제 제25765호] 주제 106 (2017)년 9월 13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주체조선의 강대성을 힘있게 과시한 기세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자

대륙간란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축하하는 군민경축대회 시, 군들에서 계속 진행

조선로동당의 전략적핵무력건설 구상에 따라 단행된 대륙간란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축하하는 군민경축대회 시, 군들에서 계속 진행되고있다.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군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들에 참가하였다.

대회장들은 주체조선의 강대성을 힘있게 과시한 기세로 핵무기의 혁명정신, 지역경제의 기지개를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쳐 이 땅위에 원자핵발전국을 반드시 일떠세울 참가자들의 혁명적의욕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회전식, 문예, 동무, 염주군 군민경축대회에서 연설자들은 온 세계를 위흔든 토 한차례의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은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에 대한 집승의 신심과 전백배의 용기를 인겨준 민족사적대승사이라고 격찬을 하였다.

그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채택한 국가핵무력건설의 전략적구상을 실천적성공으로 만들어 초강력 핵무기의 장엄한 폭음을 울림으로

로미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정신차린새없이 련속공격, 련속강타를 당긴 핵전투원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오늘의 자랑찬 폐승은 위대한 태양의 나라,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기어올린 원자핵의 강대국으로 일떠세우시기 위하여 한순간의 열정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력 무력강화의 강행과정을 전두지휘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연설자들은 주체조선의 국력을 온 누리에 펼쳐가시는 핵무탄대국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지개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범행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이 땅위에 기어올린 핵무기를 변형하는

핵무탄을 일떠세우고야말것입니다.》

연설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방공위 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복음으로 전진해 오고 보위하며 당중앙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케트 급은 핵무기의 혁명정신과 자력경쟁,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경제강국 건설의 천구마다에서 돌과구를 벌여나갈것으로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달아들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인민군장병들이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최대의 격동상태에서 적들의 준동을 예외하게 주시하며 핵무기의 훈련열풍을 세계에 일으켜 그 어떤 대적도 단애에 축약쳐 버릴수 있는 일당백의 싸움군들로 변신시켜 나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들은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언제나 심장속에 간직하고 중요대사건실정들과 핵동전야들에서 애국충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만리마선구자대화를 빛내이기 위한 총동력전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할 철석의 병세가 신로시, 강병, 배원, 금원군 군민경축대회장에서 힘차게 울려나왔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핵무력건설대업을 완수하는것을 쿠사중의 국사로 내세우고 핵무기개발의 생명을 걸고 한치 헛쳐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선안로고에 의하여 이 땅에서는 미제의 종국적멸망을 선고하는 승전포성들이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터져오르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전진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따라 병진의 한걸음 분바로 걸으며 승리의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만세만미 대경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전진총동력에 한사판같이 펼쳐나갔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의거한 생산공정의 주체화, 현대화를 더욱 다그쳐 지방공업공장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질풍은 제물들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은 경제강국건설의 주력적전방을 지켜섰다는 책임감을 지니고 과학농사일용과 다수확동음을 힘있게 벌이며 당면한 가을걷이를 준비를 빈틈없이 하여 뜻깊은 올해의 일확천금목표를 반드시 점령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총들이 일떠세울 축산기지가 온을 내도록 하며 과일과 배섯, 남색생산을 늘여 인민들이 먹을 보게 하는것과 함께 수산부문을에서 적극적인 어로전을 벌이고 양어와 양식을 근거있게 내밀어 이르는 곳마다에서 사회주의바다항기가 차년치게 활대 대하여 언급하였다.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들 세차게 지퍼올려 교육조건과 환경을 더욱 개선하며 기지와 마음, 일터를 사회주의문명국의 제모에 맞게 일신시켜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

였다.

김주, 정원, 장강군 군민경축대회에서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궁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모두가 핵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며 만리마속도창조전에 더욱 박차를 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일심단결의 위력, 자력경쟁의 위력으로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경제력들을 단호히 짓부시고 오늘날의 민족사적대승리를 더 큰 승리로 이어나가기 위한 전진총동력에 용약 펼쳐나 온 나라에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약동하는 기상과 활력이 차년치게 활대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사상을 혁명승리의 만능의 보검으로 끌어내고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5대교양에 화력을 집중하여 누구나 오늘날의 총진군길에서 당중앙결사옹위정신을 만장약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가 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에 기초한 자강력을 높이 발휘해나간다면 못해낼 일

이 없다는 힘의 권리를 심장속에 새겨안고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산림복구전투에 한사판같이 펼쳐나 모든 산들을 푸른 숲 색깔이 환금산, 보물산으로 만들어 후대들에게 만년대계의 재부로 물려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들이 당의 혁명대, 이속부대답게 과감한 공격정신과 청춘의 기백으로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망고지점명을 위한 전진총동력전에서 자력경쟁의 선봉부사, 원단들과의 제1빈수가 되어 세상을 들었다놓는 영웅청년선화물련이어 창조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핵무기의 원소위업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주체의 핵강국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떨치며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쿠바공화국 내각 수상에게 위문전문을 보내시였다

아바나

쿠 바 공 산 당 중 양 위 원 회 제 1 비 서
쿠 바 공 화 국 국 가 리 사 회 위 원 장
쿠 바 공 화 국 내 각 수 상
라 울 까 스 드 로 루 쓰 동 지

나는 최근 귀국의 동부와 중부지역에서 태풍으로 인명피해와 많은 물질적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에 접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쿠바정부와 인민 그리고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보냅니다.

나는 당신의 평도됨에 쿠바 당과 정부와 인민이 이런 자연재해의 후과를 하루빨리 가지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조 선 로 동 당 위 원 장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무 위 원 회 위 원 장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김 정 은 동 지

주제106(2017)년 9월 12일 평 양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답전을 보내어왔다

평 양

조 선 로 동 당 위 원 장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무 위 원 회 위 원 장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김 정 은 동 지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나의 생일 52살에 즈음하여 보내주신 친절한 축전을 매우 감사하게 받아보았으며 당신께서 나와 우리 나라,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감명을 주는 진실한 감정을 표시해주신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은 당신께서 우리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해주시고 우리 군대가 동맹자들과 벗들의 지원속에 테로세력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 명토한정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해주고계시는데 대하여 평가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특별한 관계가 나라의 자주권과 독립, 자기 운명을 결정해나가기 위한 인민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공동투쟁에서 두 나라와 두 인민, 세계의 복리에 부합되게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 리 아 아 랍 공 화 국 대 통 령
바 샤 르 알 아 사 드

2017년 9월 11일 디마스끄

정론

위대한 당이 우리에게 있다

인민이 사랑하는 노래의 위력은 참으로 크다. 그것은 인민의 심장의 주체이며 민심의 활화산같은 분출이기 때문이다.

민족의 궁지가 탄압에 높이 펼쳐지는 시대, 위대한 당을 따라 걸어나는 신념의 길, 승리와 영광의 한길은 최후승리의 언덕에 또 계속 끝바로, 힘차게 이어가야 할 이 시각 천만의 심장과 심장이 소중히 붙어있는 것은 무엇인가.

인민이 사랑하는 헌연의 노래이다. 《어머니를 드리는 노래!》 인민이 어머니라 부르든 조선로동당의 붉은 당기이러서만 태어날수 있는 노래, 이 세상 가장 위대하고 자애로운 품에 온평과 미애를 달고 행복하고 긍지높은 인민만이 태어날수 있는 실감의 송가 위대한 당을 따라 또다시 노래처럼 신념의 행로 위에 뜨겁게 태어났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천만군민이 당중앙의 품에 온평의 피를 받고 사는것은 동서고금 그 어디에도 있어본적 없는 조선의 진보성이요 원수들은 백번 죽어도 리해할수 없는 우리 사회의 생리이며 당과 군대 양 인민의 철옹성이요 불타는 혁명의 혁명적 단결, 바로 이것이 명심, 몇백개의 원자핵이나 수소탄에 비할바 없는 우리의 최강의 힘이다.》

노래를 두고 시대의 메아리라고 하였다. 인민의 심장의 목소리인 노래처럼 그 시대, 그 인민의 진면모를 역력히 비추어주는 거울은 없을것이다.

마사로운 그 사랑 햇빛처럼 우리를 축복 하고 재로움 그 손길 거발처럼 영광의 길로 이끄는 향도의 힘 줄기차고 역세이 이 조선 제일 강대하여라.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지난 9월 3일 내륙간선도로제정식용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하였다는 소식에 절절한 때 우리 농장의 보전마다에서 장원들은 만세를 외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떠나보내며 뜨겁게 울러온 어머니들의 그 눈물. 고아의 실음이란 말조차 모르는 이 땅의 원아들, 땅이 마려준 공진같은 세 살에 이사하던 날 첫부지이던것들은 좋아라 웃고 어른들은 고티움에 눈물짓던 광경, 원아들이 목놓아 외치는 《우리의 아버지 김정일원수님!》이라는 부름에 저도 모르게 뭉클 후덕을 눈물자국이 아직도 역력한 우리의 현재수업이다.

《무엇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라고 하면서 눈물부터 쏟던 려명처럼 새 짐의 로동자부부, 세상에 없는 로동자오랫도 일찍이 함축에 이시점을 끌어 끄만 같은 행복에 어쩔바를 몰라하던 방직공치녀들, 당중앙트락과 하나로 이어진 심포소울에 바다불경제까지 갖추어 볼거림이 이제는 풍자성이 되었다고 손가락을 짚아가며 자랑하던 군인가족들...

《노래의 힘 줄기차고 역세이 이 조선 제일 강대하여라.》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교문을 나선 자식들을 조국보위호소에 세운 원산시 방하산동의 모성영웅인 리병희녀성이 지난 8월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 그것은 그대로 어머니당에 드리는 또 하나의 노래이며 당에 대한 열화같은 지지와 신뢰의 도로가 아니겠는가.

《무엇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라고 하면서 눈물부터 쏟던 려명처럼 새 짐의 로동자부부, 세상에 없는 로동자오랫도 일찍이 함축에 이시점을 끌어 끄만 같은 행복에 어쩔바를 몰라하던 방직공치녀들, 당중앙트락과 하나로 이어진 심포소울에 바다불경제까지 갖추어 볼거림이 이제는 풍자성이 되었다고 손가락을 짚아가며 자랑하던 군인가족들...

《노래의 힘 줄기차고 역세이 이 조선 제일 강대하여라.》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을 알게 하는 이처럼 가슴지는 부름이 어디에 있나. 이인위원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수령 집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신 당, 마지막 낮과 밤을 밝은 기록에 아로새겨주신 그날부터 우리 당은 바로 인민을 품어안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품, 자애로운 인민의 어머니의 품이었다.

《무엇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라고 하면서 눈물부터 쏟던 려명처럼 새 짐의 로동자부부, 세상에 없는 로동자오랫도 일찍이 함축에 이시점을 끌어 끄만 같은 행복에 어쩔바를 몰라하던 방직공치녀들, 당중앙트락과 하나로 이어진 심포소울에 바다불경제까지 갖추어 볼거림이 이제는 풍자성이 되었다고 손가락을 짚아가며 자랑하던 군인가족들...

《노래의 힘 줄기차고 역세이 이 조선 제일 강대하여라.》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비발축에서 건설이 한창인 건물들 돌아보시면 그날의 진상집, 황금해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며 이어가신 비내리는 조국길, 수수한 율동화를 신이시고 찾으셨던 리선당의 큰골피해복구전투장, 목깃을 땀으로 적시며 이어가신 장친의 농장길...

《무엇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라고 하면서 눈물부터 쏟던 려명처럼 새 짐의 로동자부부, 세상에 없는 로동자오랫도 일찍이 함축에 이시점을 끌어 끄만 같은 행복에 어쩔바를 몰라하던 방직공치녀들, 당중앙트락과 하나로 이어진 심포소울에 바다불경제까지 갖추어 볼거림이 이제는 풍자성이 되었다고 손가락을 짚아가며 자랑하던 군인가족들...

《노래의 힘 줄기차고 역세이 이 조선 제일 강대하여라.》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가슴졌는다. 《모진 풍파 다 이긴 그 예지는 거적의 시대 일고 천만소원 쫓겨온 그 인격의 영웅인민을 키우네》라는 노래의 구절은 얼마나 눈물겨울까.

《무엇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라고 하면서 눈물부터 쏟던 려명처럼 새 짐의 로동자부부, 세상에 없는 로동자오랫도 일찍이 함축에 이시점을 끌어 끄만 같은 행복에 어쩔바를 몰라하던 방직공치녀들, 당중앙트락과 하나로 이어진 심포소울에 바다불경제까지 갖추어 볼거림이 이제는 풍자성이 되었다고 손가락을 짚아가며 자랑하던 군인가족들...

《노래의 힘 줄기차고 역세이 이 조선 제일 강대하여라.》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꼭 제 마음을 울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온 집안사람들이 악수나 한껏처럼 텔레비존에서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볼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수령결사옹위는 조선의 생명

우리 혁명적투쟁력의 역적분변의 신념을 백배배주며 노래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가 높이 울려 퍼진다.

사적지를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수십년전 그날처럼 빛을 뿌리는 《경애하는 집일성동지들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있어서 걸음은 떼지 못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그 어떤 모진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변치 않을 자신의 맹세를 당이 수혈에 살아도 죽어도 수령님을 위하여라는 규범을 남기셨다.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사수하는 것은 우리 인민군대의 기본사명이요 영광스러운 투쟁전통의 핵심이다.

박봉주 총리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현지료해

【평양 9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박봉주 내각총리가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를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이 뜻깊은 평양체류의 날을 보내었다

어머나당의 은정속에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하여 후대교육사업에 헌신하고있는 교원들이 수도 평양에서 뜻깊은 나날을 보내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교육정책을 관철하는 길에 깨끗한 방심을 바치라고 있는 교원들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어 그들을 평양으로 불러주시고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시었다.

당의 은정속에 지난 2일 평양에 도착한 교원들의 가슴거슴은 한없는 기쁨과 격정으로 설레이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평양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사후지는 그비움과 다름없는 경외의 정을 안고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신 태양궁전을 찾았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성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혼네에 들 어선 그들은 한평생 후대교육사업에 몰입한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교원들의 숭고한 뜻을 더 높은 교육성파로 꽃피워갈 결의를 마음속으로 아뢰이며 위대한 수령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후대사상, 미래사상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었다.

누가 보진말진, 알아주진말진 조국의 미래를 책임진 교원혁명가로서의 깨끗한 품성과 헌신의 자국을 새겨가고있는 이들을 모두의 순결한 애국심이 머리가 숙여진다고, 온 사회가 이들을 적극 내세워주어야 하며 그들

의 열렬한 추하를 받으며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혁명사적관과 만경대고향집을 경건한 마음으로 돌아보면서 그들은 열렬한 조국애와 혁명의 큰 뜻을 키우시며 성장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품안의 생애와 만경대일가분들의 숭고한 위업적봉모에 대하여 더욱 깊이 새겨들었다.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은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위업을 총직하게 받들고있는 대양민족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주시는 함양의 내성용 김정숙동지의 통상을 찾아다닐을 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혁명렬사들의 반신상을 돌아보면 그들은 혁명선렬들의 무한한 수명

을 절사용위정신과 투쟁기풍을 본받아 당의 교육정책을 결사의 실천으로 받들어가신님의 명세를 가다듬었다.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인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한 그들은 비범한 명도와 기상한 혁명실력으로 주체혁명위업, 인류자주위업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기록하였으며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보여주는 사적물들과 전사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교원들은 민족간부교육의 중심기지이며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집단지인 김일성종합대학을 참관하였다.

혁명사적관에 걸어진 그들은 인민의 첫 대학을 세워주시고 그 강화를 전을 위하여 바쳐오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17》 개막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17》이 개막되었다.

전람회에는 위원회, 성, 중앙기관, 각 도인민위원회, 기관, 기업소, 정보산업단위들을 비롯하여 수백개의 단위를 초청하여 내놓은 정보화성과품과 정보기술제품들이 전시되었다.

개막식이 11일 3대혁명전사관에서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동지와 전광호내각부총리, 위원회, 성, 중앙기관 책임인원들, 관계부처, 출연단원 인원과 각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김기남동지가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친서하신 당 7차대회에서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실

여기가 우리 일터입니다

함흥시국토자원보호감독대를 찾아서

그것을 꽃피우기 위한 실천투쟁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말세위인들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뜨겁게 여타는 서수수업업소에 자리잡고있는 이 초소에서 우리는 함흥시국토자원보호감독대 대령 리유광동무를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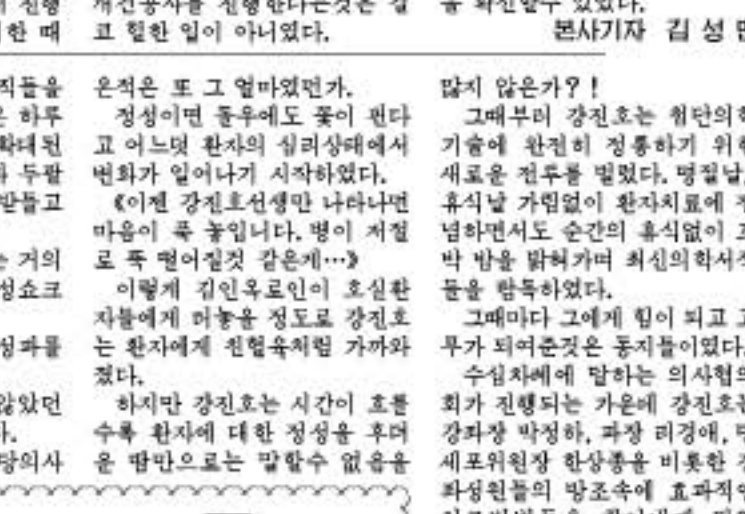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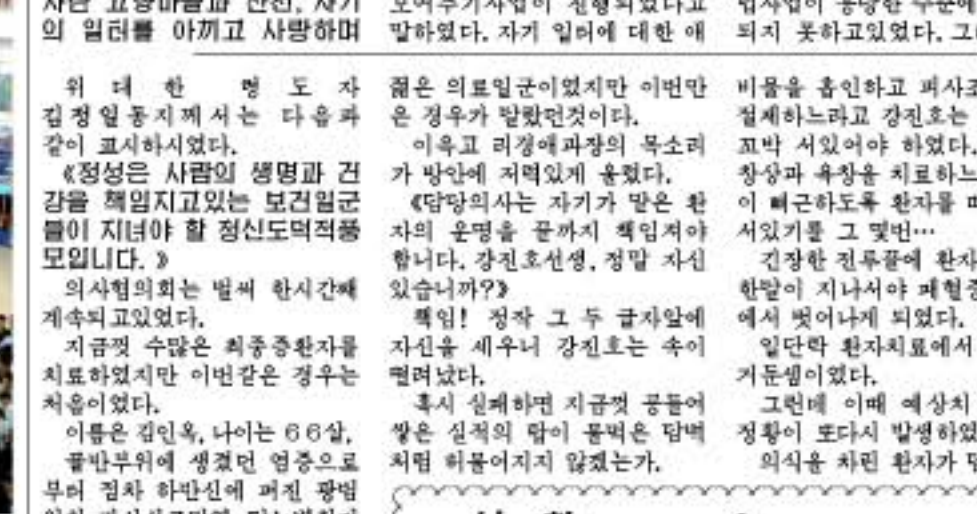
초소가 마치 한옥의 그림자같은 우리의 땅에 리유광동무는 지난해 총칭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기간 감독대의 모든 초소들이 이렇게 풍라보게 일터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농업인들이 힘을 합쳐 일터를 선정으로 꾸려가는 과정에 얼마전에는 생산문화, 생활문화화사업과 수산자원보호감독사업에 대한 전국적인 보어주시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자기 일터에 대한 애

제9차 전국대학과학연구성과전시회 개막

제9차 전국대학과학연구성과 전시회가 개막되었다.

전시회에는 당의 과학기술강국 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강계의학대학, 함흥수리공과대학 등 중앙과 지방의 90여개 대학 연구사, 대학생들이 우리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힘있게 벌여 이룩한 2,000여건의 가치있는 성과품들이



제9차 전국대학과학연구성과전시회 개막

제9차 전국대학과학연구성과 전시회가 개막되었다.

전시회에는 당의 과학기술강국 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강계의학대학, 함흥수리공과대학 등 중앙과 지방의 90여개 대학 연구사, 대학생들이 우리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힘있게 벌여 이룩한 2,000여건의 가치있는 성과품들이

실화수표

실화수표

결심이나? 아니면 포기나? 하는 갈림길에서 모태기면 그대 강진로의 마음속에 떠올라 오도게 꾸리는 사람이 있었다. 한쌍의 학사로 일한 아버지였다.

《전야, 너야 당의 은정속에 이남이네 아무런 근심걱정이 배운의 꿈을 꽃피우며 자라난 새 세대 의료인군이 아니냐. 친피미시대의 의료인원들이 과연 실업수 있었던 방학수년용 사정에서 고모이나 간지 않은가. 그러다가 한자랑 살피지 못하면... 이때 누군가가 의사의회의의 무거운 침묵을 깨쳐서 일어섰다. 《제가 한민 환자를 담당하여 치료해보겠습니다.》

라이에 갔던 국토헌경보호성대표단 귀국

라이에 갔던 국토헌경보호성대표단 귀국

대표단이 12일 평양을 떠나갔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정영남

새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결성 70돐대표단이 떠났다

김일성 중앙상임위원회 고분을 단장으로 하는 새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결성 70돐

새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결성 70돐대표단이 떠났다

새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결성 70돐 대표단이 12일 평양을 떠나갔다.

새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결성 70돐대표단이 떠났다

새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결성 70돐 대표단이 12일 평양을 떠나갔다.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휘날린 조국의 장한 아들딸들

제 29차 여름철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에서 이룩한 우리 선수들의 성과를 두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광화시기에 다른 나라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리는 사람들은 체육인들 밖에 없으며 우수의 끝메달로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맹치는것은 체육인들만의 특권이다.**》

육인들의 성스러운 임무입니다.》

지난 8월말 우리 체육인들이 제 29차 여름철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에서 거둔 승전소식이 매일같이 전해져 내리니 선수자세회를 향하여 내달리는 온 나라 인민에게 크나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맹세와 맹세

우리 선수들은 지난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중국 대륙에서 진행된 제 29차 여름철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의 역기, 볼에뛰어올리기 등 여러 종목의 경기들에 출전하여 12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23개의 메달을 획득하였다.

많은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선수들이 참가하였으며 일명 《작은 올림픽경기대회》, 《대학생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이 경기대회는 매년 여러 종목에서 세계기록들이 경신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올림픽경기대회 다음가는 국제적인 체육경기부대로 되고있다.

1924년에 뮌헨의 수도와르사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국제적인 대학생체육경기대회로는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1959년 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로 발전하여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왔다. 자료에 의하면

올림픽경기대회에서 메달을 쟁취한 많은 선수들이 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 참가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역기종목의 부시경장 정철호동무의 말에 의하면 이번 대회 역기경기에서 참가한 모쉴라, 짜자호스만, 헬만, 다이 등의 많은 선수들이 해당 나라와 지역의 1부류선수들이며 지난 시기 우리 선수들이 세계선수권대회와 올림픽경기대회에서도 잇따라 좋은 실력을 높인 선수들이라는것이었다.

그런것으로 하여 이번 대회 역기경기에서 금메달을 딴것은 매우 자랑하였다고 한다.

중국 대륙의 한 신문은 우리 나라 선수들이 제 29차 여름철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 첫날에 3개의 금메달을 쟁취한데 대해 소식을 거의 용근 환하여 실었다. 신문은 이번 대회에서 사상적인 기록을 세운것을 축하하며, 앞으로 역기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그들의

경력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번에 또다시 대회 역기종목을 세운 연음철선수를 보며 아마도 세계의 많은 기자들이 몇 해전의 세계역기선수권대회에서 역기종목을 세웠을 때 그 강한 말을 기억했으리라.

《오늘의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더욱 열심히 훈련하여 또다시 새 기록을 세우겠다.》

조국의 존엄을 댈지는 금메달과 잇닿아있는 체육인들의 명예는 얼마나 숭고한것인가.

심장으로 다진 이번 맹세를 지키기 위해 훈련에 애쓰는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온 역기선수들도 이번 경기대회에서 역기종목 75kg급경기에서 2등을 한 벨라루스선수보다 무려 20kg이 나 더 들어올려 또다시 역기종목을 놀라웠고 믿음심선수도 여자역기 63kg급경기에서 출전하여 단연 1위를 차지하였다.

남자역기 62kg급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신철민선수는 이번 이아기도 해주었다.

《대회기간 우리 선수들이 속소와 경기장내 오갈 때마다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공화국기를 바라보며 잊지않고 우리를 지켜주었다. 그 도면을 보며 우리는 저들의 내적세계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역기종목의 위력을 대인 전하는 조국의 위력에 대한 공지를 더욱 절감하였습다.》

강대한 우리 공화국의 기상을 다룬 우리 체육인들이 세계에 펼쳐야 한다는 결심이 굳어졌습다.》

우리 선수들의 정신은 이렇게 굳어졌다.

이런 경기대회 역기경기에서 2위를 한 김명현선수도, 동메달을 쟁취한 김홍식, 정준희선수들도 다름없는 그들의 의지는 또 얼마나 굳건했는가.

이들이 다지는 맹세는 퍼즐은 청춘의 심장을 다 바쳐 강대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온 누리에 더욱 빛내일 밝은 애국의 맹세이다.

어머니조국에 드린 승리의 금메달

우리의 미더운 체육선수들은 볼에뛰어올리기경기에서 단연 5개의 금메달과 3개의 은메달을 쟁취하는 혁혁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볼에뛰어올리기는 일정한 높이에 설치된 조약관을 리용하여 정해진 기술을 발휘하면서 볼을 위로 띄우려하는 경기이다.

볼에뛰어올리기종목은 1m안상, 3m안상, 10m안상, 15m안상, 20m안상, 25m안상, 30m안상, 35m안상, 40m안상, 45m안상, 50m안상, 55m안상, 60m안상, 65m안상, 70m안상, 75m안상, 80m안상, 85m안상, 90m안상, 95m안상, 100m안상, 105m안상, 110m안상, 115m안상, 120m안상, 125m안상, 130m안상, 135m안상, 140m안상, 145m안상, 150m안상, 155m안상, 160m안상, 165m안상, 170m안상, 175m안상, 180m안상, 185m안상, 190m안상, 195m안상, 200m안상, 205m안상, 210m안상, 215m안상, 220m안상, 225m안상, 230m안상, 235m안상, 240m안상, 245m안상, 250m안상, 255m안상, 260m안상, 265m안상, 270m안상, 275m안상, 280m안상, 285m안상, 290m안상, 295m안상, 300m안상, 305m안상, 310m안상, 315m안상, 320m안상, 325m안상, 330m안상, 335m안상, 340m안상, 345m안상, 350m안상, 355m안상, 360m안상, 365m안상, 370m안상, 375m안상, 380m안상, 385m안상, 390m안상, 395m안상, 400m안상, 405m안상, 410m안상, 415m안상, 420m안상, 425m안상, 430m안상, 435m안상, 440m안상, 445m안상, 450m안상, 455m안상, 460m안상, 465m안상, 470m안상, 475m안상, 480m안상, 485m안상, 490m안상, 495m안상, 500m안상, 505m안상, 510m안상, 515m안상, 520m안상, 525m안상, 530m안상, 535m안상, 540m안상, 545m안상, 550m안상, 555m안상, 560m안상, 565m안상, 570m안상, 575m안상, 580m안상, 585m안상, 590m안상, 595m안상, 600m안상, 605m안상, 610m안상, 615m안상, 620m안상, 625m안상, 630m안상, 635m안상, 640m안상, 645m안상, 650m안상, 655m안상, 660m안상, 665m안상, 670m안상, 675m안상, 680m안상, 685m안상, 690m안상, 695m안상, 700m안상, 705m안상, 710m안상, 715m안상, 720m안상, 725m안상, 730m안상, 735m안상, 740m안상, 745m안상, 750m안상, 755m안상, 760m안상, 765m안상, 770m안상, 775m안상, 780m안상, 785m안상, 790m안상, 795m안상, 800m안상, 805m안상, 810m안상, 815m안상, 820m안상, 825m안상, 830m안상, 835m안상, 840m안상, 845m안상, 850m안상, 855m안상, 860m안상, 865m안상, 870m안상, 875m안상, 880m안상, 885m안상, 890m안상, 895m안상, 900m안상, 905m안상, 910m안상, 915m안상, 920m안상, 925m안상, 930m안상, 935m안상, 940m안상, 945m안상, 950m안상, 955m안상, 960m안상, 965m안상, 970m안상, 975m안상, 980m안상, 985m안상, 990m안상, 995m안상, 1000m안상, 1005m안상, 1010m안상, 1015m안상, 1020m안상, 1025m안상, 1030m안상, 1035m안상, 1040m안상, 1045m안상, 1050m안상, 1055m안상, 1060m안상, 1065m안상, 1070m안상, 1075m안상, 1080m안상, 1085m안상, 1090m안상, 1095m안상, 1100m안상, 1105m안상, 1110m안상, 1115m안상, 1120m안상, 1125m안상, 1130m안상, 1135m안상, 1140m안상, 1145m안상, 1150m안상, 1155m안상, 1160m안상, 1165m안상, 1170m안상, 1175m안상, 1180m안상, 1185m안상, 1190m안상, 1195m안상, 1200m안상, 1205m안상, 1210m안상, 1215m안상, 1220m안상, 1225m안상, 1230m안상, 1235m안상, 1240m안상, 1245m안상, 1250m안상, 1255m안상, 1260m안상, 1265m안상, 1270m안상, 1275m안상, 1280m안상, 1285m안상, 1290m안상, 1295m안상, 1300m안상, 1305m안상, 1310m안상, 1315m안상, 1320m안상, 1325m안상, 1330m안상, 1335m안상, 1340m안상, 1345m안상, 1350m안상, 1355m안상, 1360m안상, 1365m안상, 1370m안상, 1375m안상, 1380m안상, 1385m안상, 1390m안상, 1395m안상, 1400m안상, 1405m안상, 1410m안상, 1415m안상, 1420m안상, 1425m안상, 1430m안상, 1435m안상, 1440m안상, 1445m안상, 1450m안상, 1455m안상, 1460m안상, 1465m안상, 1470m안상, 1475m안상, 1480m안상, 1485m안상, 1490m안상, 1495m안상, 1500m안상, 1505m안상, 1510m안상, 1515m안상, 1520m안상, 1525m안상, 1530m안상, 1535m안상, 1540m안상, 1545m안상, 1550m안상, 1555m안상, 1560m안상, 1565m안상, 1570m안상, 1575m안상, 1580m안상, 1585m안상, 1590m안상, 1595m안상, 1600m안상, 1605m안상, 1610m안상, 1615m안상, 1620m안상, 1625m안상, 1630m안상, 1635m안상, 1640m안상, 1645m안상, 1650m안상, 1655m안상, 1660m안상, 1665m안상, 1670m안상, 1675m안상, 1680m안상, 1685m안상, 1690m안상, 1695m안상, 1700m안상, 1705m안상, 1710m안상, 1715m안상, 1720m안상, 1725m안상, 1730m안상, 1735m안상, 1740m안상, 1745m안상, 1750m안상, 1755m안상, 1760m안상, 1765m안상, 1770m안상, 1775m안상, 1780m안상, 1785m안상, 1790m안상, 1795m안상, 1800m안상, 1805m안상, 1810m안상, 1815m안상, 1820m안상, 1825m안상, 1830m안상, 1835m안상, 1840m안상, 1845m안상, 1850m안상, 1855m안상, 1860m안상, 1865m안상, 1870m안상, 1875m안상, 1880m안상, 1885m안상, 1890m안상, 1895m안상, 1900m안상, 1905m안상, 1910m안상, 1915m안상, 1920m안상, 1925m안상, 1930m안상, 1935m안상, 1940m안상, 1945m안상, 1950m안상, 1955m안상, 1960m안상, 1965m안상, 1970m안상, 1975m안상, 1980m안상, 1985m안상, 1990m안상, 1995m안상, 2000m안상, 2005m안상, 2010m안상, 2015m안상, 2020m안상, 2025m안상, 2030m안상, 2035m안상, 2040m안상, 2045m안상, 2050m안상, 2055m안상, 2060m안상, 2065m안상, 2070m안상, 2075m안상, 2080m안상, 2085m안상, 2090m안상, 2095m안상, 2100m안상, 2105m안상, 2110m안상, 2115m안상, 2120m안상, 2125m안상, 2130m안상, 2135m안상, 2140m안상, 2145m안상, 2150m안상, 2155m안상, 2160m안상, 2165m안상, 2170m안상, 2175m안상, 2180m안상, 2185m안상, 2190m안상, 2195m안상, 2200m안상, 2205m안상, 2210m안상, 2215m안상, 2220m안상, 2225m안상, 2230m안상, 2235m안상, 2240m안상, 2245m안상, 2250m안상, 2255m안상, 2260m안상, 2265m안상, 2270m안상, 2275m안상, 2280m안상, 2285m안상, 2290m안상, 2295m안상, 2300m안상, 2305m안상, 2310m안상, 2315m안상, 2320m안상, 2325m안상, 2330m안상, 2335m안상, 2340m안상, 2345m안상, 2350m안상, 2355m안상, 2360m안상, 2365m안상, 2370m안상, 2375m안상, 2380m안상, 2385m안상, 2390m안상, 2395m안상, 2400m안상, 2405m안상, 2410m안상, 2415m안상, 2420m안상, 2425m안상, 2430m안상, 2435m안상, 2440m안상, 2445m안상, 2450m안상, 2455m안상, 2460m안상, 2465m안상, 2470m안상, 2475m안상, 2480m안상, 2485m안상, 2490m안상, 2495m안상, 2500m안상, 2505m안상, 2510m안상, 2515m안상, 2520m안상, 2525m안상, 2530m안상, 2535m안상, 2540m안상, 2545m안상, 2550m안상, 2555m안상, 2560m안상, 2565m안상, 2570m안상, 2575m안상, 2580m안상, 2585m안상, 2590m안상, 2595m안상, 2600m안상, 2605m안상, 2610m안상, 2615m안상, 2620m안상, 2625m안상, 2630m안상, 2635m안상, 2640m안상, 2645m안상, 2650m안상, 2655m안상, 2660m안상, 2665m안상, 2670m안상, 2675m안상, 2680m안상, 2685m안상, 2690m안상, 2695m안상, 2700m안상, 2705m안상, 2710m안상, 2715m안상, 2720m안상, 2725m안상, 2730m안상, 2735m안상, 2740m안상, 2745m안상, 2750m안상, 2755m안상, 2760m안상, 2765m안상, 2770m안상, 2775m안상, 2780m안상, 2785m안상, 2790m안상, 2795m안상, 2800m안상, 2805m안상, 2810m안상, 2815m안상, 2820m안상, 2825m안상, 2830m안상, 2835m안상, 2840m안상, 2845m안상, 2850m안상, 2855m안상, 2860m안상, 2865m안상, 2870m안상, 2875m안상, 2880m안상, 2885m안상, 2890m안상, 2895m안상, 2900m안상, 2905m안상, 2910m안상, 2915m안상, 2920m안상, 2925m안상, 2930m안상, 2935m안상, 2940m안상, 2945m안상, 2950m안상, 2955m안상, 2960m안상, 2965m안상, 2970m안상, 2975m안상, 2980m안상, 2985m안상, 2990m안상, 2995m안상, 3000m안상, 3005m안상, 3010m안상, 3015m안상, 3020m안상, 3025m안상, 3030m안상, 3035m안상, 3040m안상, 3045m안상, 3050m안상, 3055m안상, 3060m안상, 3065m안상, 3070m안상, 3075m안상, 3080m안상, 3085m안상, 3090m안상, 3095m안상, 3100m안상, 3105m안상, 3110m안상, 3115m안상, 3120m안상, 3125m안상, 3130m안상, 3135m안상, 3140m안상, 3145m안상, 3150m안상, 3155m안상, 3160m안상, 3165m안상, 3170m안상, 3175m안상, 3180m안상, 3185m안상, 3190m안상, 3195m안상, 3200m안상, 3205m안상, 3210m안상, 3215m안상, 3220m안상, 3225m안상, 3230m안상, 3235m안상, 3240m안상, 3245m안상, 3250m안상, 3255m안상, 3260m안상, 3265m안상, 3270m안상, 3275m안상, 3280m안상, 3285m안상, 3290m안상, 3295m안상, 3300m안상, 3305m안상, 3310m안상, 3315m안상, 3320m안상, 3325m안상, 3330m안상, 3335m안상, 3340m안상, 3345m안상, 3350m안상, 3355m안상, 3360m안상, 3365m안상, 3370m안상, 3375m안상, 3380m안상, 3385m안상, 3390m안상, 3395m안상, 3400m안상, 3405m안상, 3410m안상, 3415m안상, 3420m안상, 3425m안상, 3430m안상, 3435m안상, 3440m안상, 3445m안상, 3450m안상, 3455m안상, 3460m안상, 3465m안상, 3470m안상, 3475m안상, 3480m안상, 3485m안상, 3490m안상, 3495m안상, 3500m안상, 3505m안상, 3510m안상, 3515m안상, 3520m안상, 3525m안상, 3530m안상, 3535m안상, 3540m안상, 3545m안상, 3550m안상, 3555m안상, 3560m안상, 3565m안상, 3570m안상, 3575m안상, 3580m안상, 3585m안상, 3590m안상, 3595m안상, 3600m안상, 3605m안상, 3610m안상, 3615m안상, 3620m안상, 3625m안상, 3630m안상, 3635m안상, 3640m안상, 3645m안상, 3650m안상, 3655m안상, 3660m안상, 3665m안상, 3670m안상, 3675m안상, 3680m안상, 3685m안상, 3690m안상, 3695m안상, 3700m안상, 3705m안상, 3710m안상, 3715m안상, 3720m안상, 3725m안상, 3730m안상, 3735m안상, 3740m안상, 3745m안상, 3750m안상, 3755m안상, 3760m안상, 3765m안상, 3770m안상, 3775m안상, 3780m안상, 3785m안상, 3790m안상, 3795m안상, 3800m안상, 3805m안상, 3810m안상, 3815m안상, 3820m안상, 3825m안상, 3830m안상, 3835m안상, 3840m안상, 3845m안상, 3850m안상, 3855m안상, 3860m안상, 3865m안상, 3870m안상, 3875m안상, 3880m안상, 3885m안상, 3890m안상, 3895m안상, 3900m안상, 3905m안상, 3910m안상, 3915m안상, 3920m안상, 3925m안상, 3930m안상, 3935m안상, 3940m안상, 3945m안상, 3950m안상, 3955m안상, 3960m안상, 3965m안상, 3970m안상, 3975m안상, 3980m안상, 3985m안상, 3990m안상, 3995m안상, 4000m안상, 4005m안상, 4010m안상, 4015m안상, 4020m안상, 4025m안상, 4030m안상, 4035m안상, 4040m안상, 4045m안상, 4050m안상, 4055m안상, 4060m안상, 4065m안상, 4070m안상, 4075m안상, 4080m안상, 4085m안상, 4090m안상, 4095m안상, 4100m안상, 4105m안상, 4110m안상, 4115m안상, 4120m안상, 4125m안상, 4130m안상, 4135m안상, 4140m안상, 4145m안상, 4150m안상, 4155m안상, 4160m안상, 4165m안상, 4170m안상, 4175m안상, 4180m안상, 4185m안상, 4190m안상, 4195m안상, 4200m안상, 4205m안상, 4210m안상, 4215m안상, 4220m안상, 4225m안상, 4230m안상, 4235m안상, 4240m안상, 4245m안상, 4250m안상, 4255m안상, 4260m안상, 4265m안상, 4270m안상, 4275m안상, 4280m안상, 4285m안상, 4290m안상, 4295m안상, 4300m안상, 4305m안상, 4310m안상, 4315m안상, 4320m안상, 4325m안상, 4330m안상, 4335m안상, 4340m안상, 4345m안상, 4350m안상, 4355m안상, 4360m안상, 4365m안상, 4370m안상, 4375m안상, 4380m안상, 4385m안상, 4390m안상, 4395m안상, 4400m안상, 4405m안상, 4410m안상, 4415m안상, 4420m안상, 4425m안상, 4430m안상, 4435m안상, 4440m안상, 4445m안상, 4450m안상, 4455m안상, 4460m안상, 4465m안상, 4470m안상, 4475m안상, 4480m안상, 4485m안상, 4490m안상, 4495m안상, 4500m안상, 4505m안상, 4510m안상, 4515m안상, 4520m안상, 4525m안상, 4530m안상, 4535m안상, 4540m안상, 4545m안상, 4550m안상, 4555m안상, 4560m안상, 4565m안상, 4570m안상, 4575m안상, 4580m안상, 4585m안상, 4590m안상, 4595m안상, 4600m안상, 4605m안상, 4610m안상, 4615m안상, 4620m안상, 4625m안상, 4630m안상, 4635m안상, 4640m안상, 4645m안상, 4650m안상, 4655m안상, 4660m안상, 4665m안상, 4670m안상, 4675m안상, 4680m안상, 4685m안상, 4690m안상, 4695m안상, 4700m안상, 4705m안상, 4710m안상, 4715m안상, 4720m안상, 4725m안상, 4730m안상, 4735m안상, 4740m안상, 4745m안상, 4750m안상, 4755m안상, 4760m안상, 4765m안상, 4770m안상, 4775m안상, 4780m안상, 4785m안상, 4790m안상, 4795m안상, 4800m안상, 4805m안상, 4810m안상, 4815m안상, 4820m안상, 4825m안상, 4830m안상, 4835m안상, 4840m안상, 4845m안상, 4850m안상, 4855m안상, 4860m안상, 4865m안상, 4870m안상, 4875m안상, 4880m안상, 4885m안상, 4890m안상, 4895m안상, 4900m안상, 4905m안상, 4910m안상, 4915m안상, 4920m안상, 4925m안상, 4930m안상, 4935m안상, 4940m안상, 4945m안상, 4950m안상, 4955m안상, 4960m안상, 4965m안상, 4970m안상, 4975m안상, 4980m안상, 4985m안상, 4990m안상, 4995m안상, 5000m안상, 5005m안상, 5010m안상, 5015m안상, 5020m안상, 5025m안상, 5030m안상, 5035m안상, 5040m안상, 5045m안상, 5050m안상, 5055m안상, 5060m안상, 5065m안상, 5070m안상, 5075m안상, 5080m안상, 5085m안상, 5090m안상, 5095m안상, 5100m안상, 5105m안상, 5110m안상, 5115m안상, 5120m안상, 5125m안상, 5130m안상, 5135m안상, 5140m안상, 5145m안상, 5150m안상, 5155m안상, 5160m안상, 5165m안상, 5170m안상, 5175m안상, 5180m안상, 5185m안상, 5190m안상, 5195m안상, 5200m안상, 5205m안상, 5210m안상, 5215m안상, 5220m안상, 5225m안상, 5230m안상, 5235m안상, 5240m안상, 5245m안상, 5250m안상, 5255m안상, 5260m안상, 5265m안상, 5270m안상, 5275m안상, 5280m안상, 5285m안상, 5290m안상, 5295m안상, 5300m안상, 5305m안상, 5310m안상, 5315m안상, 5320m안상, 5325m안상, 5330m안상, 5335m안상, 5340m안상, 5345m안상, 5350m안상, 5355m안상, 5360m안상, 5365m안상, 5370m안상, 5375m안상, 5380m안상, 5385m안상, 5390m안상, 5395m안상, 5400m안상, 5405m안상, 5410m안상, 5415m안상, 5420m안상, 5425m안상, 5430m안상, 5435m안상, 5440m안상, 5445m안상, 5450m안상, 5455m안상, 5460m안상, 5465m안상, 5470m안상, 5475m안상, 5480m안상, 5485m안상, 5490m안상, 5495m안상, 5500m안상, 5505m안상, 5510m안상, 5515m안상, 5520m안상, 5525m안상, 5530m안상, 5535m안상, 5540m안상, 5545m안상, 5550m안상, 5555m안상, 5560m안상, 5565m안상, 5570m안상, 5575m안상, 5580m안상, 5585m안상, 5590m안상, 5595m안상, 5600m안상, 5605m안상, 5610m안상, 5615m안상, 5620m안상, 5625m안상, 5630m안상, 5635m안상, 5640m안상, 5645m안상, 5650m안상, 5655m안상, 5660m안상, 5665m안상, 5670m안상, 5675m안상, 5680m안상, 5685m안상, 5690m안상, 5695m안상, 5700m안상, 5705m안상, 5710m안상, 5715m안상, 5720m안상, 5725m안상, 5730m안상, 5735m안상, 5740m

